



■ 제주,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 / 561명 확진... 1일 1.5명꼴

# 전국대비 0.64%... 작년 12월 340명 폭증

### 사우나·등 집단감염으로 한때 제주사회 비상 최근 확진자 감소세 속 소규모 n차감염은 여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평가되던 제주도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 도내 누적 확진자는 561명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대비 확진자 비율은 낮지만 한때 집단감염이 퍼지면서 혼란을 치르기도 했다. 최근 소규모 감염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 만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561명이다.

도내 1번 확진자는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지난해 2월 21일 당시 대구를 방문하고 온 해군 장

병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도내 확진자는 타지역 방문 후 확진, 귀국 유학생, 국외 여행객 관련 감염 사례였다. 당시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제주에서 본격 확산세가 시작된 시기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다. 제주도 한림읍, 산방산 탄산온천 등에서 본격화한 'n차감염'은 지난해 9월까지 이어졌다. 10월엔 내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11월 들어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하기 시작했다. 진주 이·통장회 장단협의회 여파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던 성안교회, 김녕성당, 대기고등학교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방역체계가 흔들렸다. 특히 한라사우나 관련 누적 확진자는 88명을 기록했다.

도내 월별 확진자 수는 지난해 1월 0명, 2월 2명, 3월 7명, 4월 4명, 5월 2명, 6월 4명, 7월 7명, 8월 20명, 9월 13명, 10월 0명, 11월 22명, 12월 340명, 올해 1월 101명 등이다.

코로나19 확진 관련 도내 첫 사망자도 나왔다.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입원한 60대 남성으로, 입원 50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도는 집단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보다 강화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적용했다. 당시 적용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가족 간 감염 등 소규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방역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18~20일 사흘 동안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인과 가족 간 소모임과 접촉으로 인한 추가 확산 양상이 늘고 있다"며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사적인 모임을 가능한 자제하며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8만6922명 대비 제주지역 확진자 비율은 0.64%다.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31.45%를 차지하며, 경기도가 25.95%로 두 지역이 국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 전국 최대규모 온라인 물품사기단 실행 지법, 피의자 29명 모두 유죄... 19명 징역 1년6월~15년

### 7년간 범행... 피해액 49억

전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물품 사기단' 일당이 무더기로 실행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9)씨 등 29명에 대해 모한 추가 확산 양상이 늘고 있다"며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사적인 모임을 가능한 자제하며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 31일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장터에서 가전 제품,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5092명, 피해 금액은 약 49억 원에 달한다.

강씨 등은 사장단, 조직원 모집책, 통장 모집책, 판매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특히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유명 포털사이트에 있지도 않은 매장을 허위 등록하거나 위조된 명함과 사업자 등록증 등을 활용했다.

아울러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 피해자의 주소로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무료 나눔 게시판(물품을 주변에 무료로 나눠주는 이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올려 수십통의 전화가 걸려오도록 하는 등 이른바 '배달·전화 테러'를 일삼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랜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액도 크고,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 모텔서 불... 400여만원 피해

지난 18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의 숙박시설 1층에서 불이 나 12분 만에 진압됐다. 이 화재로 숙박시설 내부 26.4㎡와 TV, 에어컨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2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1층 객실에 있던 멀티콘센트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 철거중인 단독주택 화재

제주시 용담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등과 손에 화상을 입은 A(54)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2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7분쯤 제주시 용담동 철거 중인 단독주택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32명의 인력을 투입해 10여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화재로 인해 A(54)씨가 등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발화지점에서 신문지와 불을 지핀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방화 및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민성기자



봄 분위기 물씬 겨울 바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20일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두꺼운 겨울 외투를 벗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후 달아난 40대 입건

### 운전중 추월 문제로 시비

운전 도중 추월 문제로 시비끝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추월 문제로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하고 달아난 A씨를 폭행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와흘사거리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어 차량에서 내린 후 B

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 한 가운데서 B씨를 때리다 주변 시민들이 말리자 폭행을 멈추고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6시간여만에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민성기자

## 또래 학생 집단폭행 중학생 7명 입건

모텔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 구타한 혐의로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소재 중학생 A양 등 7명을 붙잡아 집단 폭행(특수폭행)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자신을 함담했던 이유로 피해 학생을 모텔로 불러 다른 학생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 중 남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모텔 입주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강민성기자

### 악천후 속 선원 5명 구조 해경 특별승진

이주현 항공구조사



지난달 악천후로 좌초된 어선 선원 5명을 전원 구조한 해양경찰관이 경사에서 경위로 특별승진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 '해양사고 인명구조 유공자'로 이주현 제주해경청 항공구조사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위로 승진한 이 항공구조사는 지난 1월 31일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발생한 좌초선박 방주호의 선원 5명을 전원 구조한 공로로 유공자에 선정됐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뚜렷한 성과를 낸 우수 공무원을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의 우대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송은범기자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마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 성분  
토양의 pH를 맞추주는 역할, 양분유통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병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알**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앞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WIDEX 제주센터

#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와목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 그랜드 보청기

# 2021 히트브랜드 대상 보청기 부문 수상

2021 히트브랜드 대상 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샐롱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셨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선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형복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